전남도교육청, 직업계고 학과개편 추진

순천 청암대서 전남 직업교육 발전 방안 공청회

전남혁신형 기업맞춤 교육 정책 추진 위해 마련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전남의 여건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직업계고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주문식 직업교육 추진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의 질(률)을 높이기 위한 '전남 직업교육 발전 방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

순천 청암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과 개편과 전남혁신형 기업맞춤(JOBs)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전남혁신형 기업맞춤교육'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전남 직업계고가 전남의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을 주문식으로 실시하고,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타 지역이 아닌 전남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남혁신형 기업맞춤(JOBs)교육을 특성화고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혁신형 기업맞춤(JOBs, Jeollanamdo Ordered education for Business needs of Students)' 교육은 민선3기 전남교육의 기본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 학생이 전남의 기업체와 함께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혁신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 학급수를 적정규모로 감축하고, 지역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육성에 부응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 시간은 직업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전남 교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농어촌 여건 상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 및 지역주민 생활의 센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47개 직업계고 모두를 존속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학급수 감축을 통해 적정규모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력양성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수요 및 미래산업사회 인력수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모두가 소중한 전남 직업교육 실현' '특성화고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체제개편 추진 T/F와 기업맞춤교육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들 T/F는 그동안 △특성화고 신입생 변화 추이 △취업률 △최근 학과개편 현황 △학교의 학과개편 희망유형 △지역전략산업 인력수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유형을 조사하는 등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전남 직업교육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손현숙 과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학령인구 급감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전남 직업계고등학교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학과를 개편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체질을 선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혁신형 직업교육(JOBs교육) 정책을 통해 전남의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채용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문화된 기능을 갖추고 전남의 우수기업으로 취업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활약상 공유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서 79명 활동 보고회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9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18 청소년 해외봉사단 활동 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준비에 들어가 올해 1월27일 종료된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는 해외봉사단 파견 학생 및 학부모, 주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외봉사활동 확인서 수여에 이어 (사)선한영향력, (사)광주공동체, (사)세상을 이어가는 끈, (사)남구자원봉사센터의 4개 주관 단체에서 해외봉사 활동 보고를 진행했다.

2018 청소년 해외봉사단 79명은 라오스 비엔티안, 필리핀 보홀 바클라욘, 캄보디아 크롱껩, 태국 치앙마이 등지에서 2019년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벽화 그리기, 의료봉사 활동, 재능봉사 활동 및 교육봉사, 환경정비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 등을 현지 학생들 및 주민들과 함께 했다.

봉사단 학생들은 '나의 성장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란 질문에 88%가 "이번 사업을 통해 나의 목표가 생겼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 94%와 90%가 각각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려와 협동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답해 이번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외봉사활동 사업 전체에 대한 만족도도 96.3%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주위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참여하고 싶다" 등이 나왔다.

보고회에 함께한 장휘국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79명 학생들이 해외봉사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현지에서 흘린 땀방울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웠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세계 속 인재로 성장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무안고에 공자학당 개원

무안고등학교(교장 정한성)에 공자학당이 문을 열였다.

무안고등학교는 20일 교내에서 '공자학당' 개원식을 갖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 쑨쉬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 정기영 세한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공자학당 개원을 축하했다.

무안고는 2017년 9월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공자학당으로 지정받아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받게 됐다.

무안고 공자학당은 앞으로 중국어 교육 뿐 아니라 중국문화체험, 중국 현장학습, 중국 대학·고등학교와의 교류, 그리고 무안지역 초·중·고 학생 및 지역민 대상 중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 진로 고민 '고흥 삼남매'와 특별한 만남

자신의 꿈 실현 위해 진학 등 조언 구해

진로진학에 고민하던 고흥 삼남매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고흥에 사는 류 씨 삼남매는 지난 19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장석웅 교육감을 만나 진로·진학 등을 주제로 1시간 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삼남매의 어머니가 지난 8일 도교육청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고, 장 교육감이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됐다.

여학생인 맏이와 둘째는 고2, 3학년에, 남학생인 막내는 중 2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맏이는 일반계고 문과를 다니지만 농촌지도사나 연구사가, 둘째는 청소년복지사나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장래희망이다. 이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대학과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장 교육감의 조언을 구했다.

장 교육감은 "두 친구 모두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망한 분야를 장래희망으로 삼아서 기쁘다"며 "성적이나 대학, 학과 등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만의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맏이에겐 "농생명 분야에선 전남대, 순천대 등 우리 지역 국립대학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도전하길 바라고 대학원 진학 등 멀리 보고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둘째에겐 "상담이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과가 많은 만큼 꾸준히 해온 사회복지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며 수시전형을 잘 준비해서 도전해보라."고 조언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막내에겐 "유투브나 게임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만들기라는 좋은 재주를 가졌으니 만화도 좋고,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권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만남에 대해 "진로나 진학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의 현실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고민하는 어머니의 열정이 너무 감동이었다."며 "작은 격려라도 해주고 싶어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삼남매의 어머니는 "갑작스럽고 무리한 요구인 줄 알지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이시니 희망의 불씨를 붙여달라는 뜻으로 청을 드렸다."면서 "직접 만나주겠다고 해서 놀랐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삼남매는 "교육감님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마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자녀의 진로진학 지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4개 권역(목포, 여수, 순천, 나주)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 4월부터 본격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대학입시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찾아가는 상담, 학부모설명회, 대입정보박람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남교육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전문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지국안내

계 림	010-3635-7195	백 운	010-2943-8374
중 앙	010-3365-6200	광 산	010-5604-6533
학 운	010-4166-1810	송 하	010-8620-1925
광 천	010-6612-8599	임 동	010-2656-4543
금 호	010-6636-2775	양 산	010-2646-3205
상 무	010-5359-7406	오 치	010-7532-3313
풍 암	010-6634-5084	북 구	010-4601-2080
화 정	010-8438-3819	동 운	018-611-7751
봉 선	010-9474-0212	용 봉	010-4601-2080
진 월	010-2615-8374	두 암	010-2684-6091

◆ 시외안내

강 진	010-4606-0660	영 암	010-5655-2415
담 양	010-3629-9016	완 도	010-9578-5900
무 안	010-5234-2313	장 성	010-5287-7711
보 성	061-853-9125	장 흥	010-6234-6226
순 천	010-2300-9083	진 도	010-3081-5203
광 양	010-5604-6981	함 평	010-3625-3160
여 수	010-6655-8503	화 순	010-2077-6464
영 광	010-3611-3081	곡 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